

보살계본지범요기 필사본 2종 찾았다

시게마두 쇼우덴스님, 日 서교사서 발견

원효스님의 계율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의 필사본 2종이 일본 서교사(西教寺)에서 발견돼 주목을 끌고 있다.

원효(雲惠)스님이 필사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 중 흥안6년본을 신수대장경본과 대조한 결과 서로 다른 글

자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의 사상이 일본불교에 얼마나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효스

통되기 시작한 이래 1천년 이상 일본 불교에 꾸준히 영향을 미쳐온 '보살계본지범요기'는 지금까지 필사본으로 서대사장본(西大寺藏本)(1244), 동대사본(東大寺本)(1301) 등과 목판본으로는 高野山大學本(1686), 大谷大學藏本(1688) 등 모두 8종류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번



◇시게마두 쇼우덴스님.

의 저서는 4권에 불과하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원효의 대부분 저술은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이나 대일본속장경에 수록된 활자본에 토대한 것"이라며 "이번 필사본의 발견을 계기로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의 국내 원효저술의 서지학(書誌學)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백제 특유의 양식을 보이는 태안 마애삼존불. 최근 이 삼존불은 미륵보살(中) 석가불상(左) 다보불상(右)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마애불 6세기말 조성”

문명대교수 주장

태안 마애불상은 7세기초가 아닌 6세기 말경에 조성됐으며, 불상 명칭 또한 관음보살(중앙보살상), 약사불상(左불상), 석가불상·아미타불상(右불상)이 아닌 미륵보살·석가불상·다보불상(중앙·左·右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명대교수(동국대)는 지난 13일 동국대에서 열린 '미술사 학술세미나'에서 95년 5월부터 실시한 태안마애삼존불상의 발굴보수작업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고 발표했다.

문교수는 태안마애불의 경우 삼존형식과 체구가 상당히 다른 점 등 隋初(초) 불상의 영향을 반영한 7세기 전반기로 제작연대가 추정돼 왔으나, 불의(佛衣)의 장식적인 양식이 중국의 6세기초 북위 말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얼굴의 대담한 표정, 파격적인 미소와 체구의 중대성, 대좌의 연꽃무늬 등은 중국 동서魏양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북제 양식 불상의 특징과 유사한 등 늦어도 北齊·隋初 양식과 흡사하기 때문에 6세기의 3/4분기나 4/4분기의 양식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상 명칭은 지금까지 중앙보살상이 관음보살로, 좌불상이 약사불상으로, 우불상이 석가불상 또는 아미타불상

로 알려져 왔으나 중국의 도상(圖像)과 비교사적 고증을 거친 결과 좌우, 석가·다보불과 중앙 미륵보살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보살의 경우 당시 주요 신앙의 예배대상의 근거와 보주(寶珠)를 잡은 수인(수)을 한 보살은 관음보살이 보편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관음보살로 추정돼 왔으나, 實際는 석가불상 협시상이나 미륵보살·미륵불상 협시보살 등 어느 보살상이나 다 가질 수 있는 통인(通印)이기 때문에 도상적으로 관음보살 설은 유보해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左·右불상은 중국 北周(대) 2년(580년), 상해박물관상)과 초기 인도불상의 도상에서 나타난 예로 볼 때 좌불상은 석가불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右불상은 어느 불상이나 지을 수 있는 통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도상과 불교신앙사상의 특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당시의 도상으로 이 불변좌상(二佛並左像)의 명칭은 다보(多寶)·석가(釋迦) 불 밖에 없으며 중앙이 보살상이기 때문에 좌우 두 불상이 병립해 있다고 보아 이를 병좌상이 분명하므로 석가·다보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

사물들을 중국도상 비교 새로命名

부산 만덕사지 복원 움직임

문화단체등 '성역화' 추진위 결성

민화회, 낙동항도문화원, 향토문화기리기모임 등 부산의 문화단체와 만덕사(주지 금산스님)는 최근 만덕사 복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 성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시에 보건허가를 요청기로 했다. 지난 72년 문화재 전문위원

들의 학술적 고증을 거쳐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만덕사지는 통일신라 말~고려 초 창건된 사찰로 국내에서는 희귀한 석축양식을 보유하고 있어 발굴복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1283·1643년판 20여장... 오탈자 적고 보관상태 양호

일본속 원효사상 재확인... 경전 바른 해석에 도움

자가 30여군데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수대장경본보다 오자(誤字)나 탈자(脫字)가 없어 지금까지 뜻이 맞지 않았던 일부의 명확한 뜻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게마두스님은 "이 필사본은 신라불교가 일본불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는

바른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세기 중반경부터 일본에 유

에 발견된 필사본은 서대사장본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인사 시간장경(寺刊藏經)중 고려후기에 간행됐던 잔본(殘本)이 전해지고 있으나 전체 9판중 제4판만이 남아있다.

김상현교수(고원대)는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원효스님

맨스필드 교수는 <현대 물리학과 불교에 있어 시간의 개념>(Time in Madhyamika Buddhism and Modern Physics)에서 "시간의 개념은 불교와 물리학에서 동일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 있어 시간은 아직까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물리학에 비해 불교의 발전을 뒤처지게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맨스필드 교수에 따르면 불교와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시간은 각각 다른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 시간은 대부분 과거·현재·미래로 구분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세(三世)로 일컫는다.

예전의 물리학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미래를 '비대칭적' 구조로 생각하고, 과거·미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불교는 과거·미래를 '대칭적'으로 분류하고 '바꿀 수 없는 성격'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현대

4월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최근 인터넷에서는 과학과 불교를 비교한 논문 세 편이 나란히 전자출판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논문은 불교와 불교의 공통성을 지적한 에딩턴(백스칸대, 미국)교수의 <물리화 세계의 본질>, 삼세(三世)의 한계를 부정한 홀리웰(캠브리지대, 영국)교수의 <비대칭적인 시간의 기원> 그리고 물리학적 사유가 불교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고 주장한 맨스필드(플게이트대, 미국)교수의 논문 <현대 물리학과 불교에 있어 시간의 개념> 등이다. 이중 맨스필드 교수의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불교 시간관 '空' 사상 비탄

맨스필드교수 '현대물리학과 불교...' 서 주장

물리학 '카오스·생성·소멸' 관계 중시

에 이르러 물리학은 '카오스' '생성·소멸' 등의 이론의 도입으로 우주 광활성이 유려해졌다. 따라서 시간의 정의 또한 불교적 시점인 대칭적 개념으로

변했다는 것.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칭적 구조를 갖게 된 시간 개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리학과 불교에서 '시간' 개념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물리학의 경우 시간의 객체인 '카오스' '생성·소멸'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반면 불교는 '인과' '상호관계' '업' 등과 같은 시간의 객체를 통해 '空' 사상을 도출해 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각 객체 간의 '관계'를 중시한 물리학과 다르게 불교는 단지 '空' 사상을 도출했기 때문에 우주가 지나고 있는 각 객체간의 유기적 관계보다는 철학적인 '무상(無常)'을 이끌어 냈다는 것. 맨스필드 교수는 "시간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가능할 때, 물리학과 불교가 서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로 마무리했다.

맨스필드 교수의 논문은 'http://www.lightlink.com/vic/time.html'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동화사 대웅전

동화사 (시방세계역무비) 世間所有我盡見 (세간소유아진견) 一切無有如佛者 (일체무유여불자)

하늘 위 아래 어디에도 부처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부처님의 존귀함 비할 바 없으라”

남같이 존귀하신 분 안게시고 시방세계를 다 둘러 봐도 역시 비교할 만한 분 없도다.

고 1727년에 천순 흥재 의회에 의해 다시 중수되었다. 현재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 10호로 지정돼 있다.

안에 모셔진 삼존불은 1728년에 왕준이 만든 것이며 후불탱화는 1620년에 의현이 그린 것을 후에 다시 고친 것이다. 천정의 극락조가 일품인 동화사 대웅전의 주련은 고성 열불의 한 구절을 옮겨다 놓은 것이다.

대웅전의 주련은 대개 부처님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평이한 내용이지만 부처님의 존귀함을 비할 것이 없다는 표현을 매우 방대하게 하고 있어 시원스럽다. (안동 경안중 교사)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妙心스님 音樂活動 回向紀念

출연진

- 메조소프라노 : 묘 심 금강선원 원장
- 테너 : 조풍상 효성여대 조교수
- 소프라노 : 권영희 제주대,군산대 출강
- 테너 : 이춘기 제주대 음악과 교수
- 테너 : 조영수 부산 예술대 교수

찬조출연 : (가수) 조영남

- 불교서정가곡의 매력에 심취되어 이 음악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피아노 : 이희열

출연단체

- 청룡마야 합창단 : (지휘) 정옥녀
- 비로자나 합창단 : (지휘) 조영근

■ 일시 : 1996년 6월 5일 오후 7시

■ 장소 :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452 - 0002)

■ 주최 : 소리샘 예술기획 (596 - 7162)

■ 후원 :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음악연구회, 불광사마하보리합창단, 수국사합창단, 중앙합창단, 인천동암사합창단, 부산우담바라합창단, 부산삼광사합창단, 부산한마음선원합창단, 금강불교합창단, 청룡마야합창단,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

■ 협찬 : 불교여래연, 울산여성단체협의회